

“말·글·생각이 리더십 요체... 글 쓰기 전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특강 강원국 전 청와대연설비서관

4차 산업혁명시대 키워드 창의·창조는 말에서 시작 미래에는 정보 공유하고 융합하는 협력과 연대 필요

“말과 글, 그리고 생각이 리더십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전 청와대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전북대 초빙교수는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창의와 창조가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시대와 오고 있다”며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력 있는 사람은 기발하고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창의’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고 그 앞에서 주눅들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왜 ‘창의’라는 말에 주눅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글을 쓰지 않아서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니면서 교과

서만 보고, 받아쓰기 잘하고, 시험 잘 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남의 것을 잘 이해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인재로 대우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자신의 의사와 생각 등을 표현하지 않는 반면, 듣기와 읽기, 암기, 이해력, 분석력은 뛰어나다”며 “남의 것을 분석·평가하고 모방하는 능력이 좋아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결코 창의·창조능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뒤쫓아오고 모방해 더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 원천기술을 직접 개발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는 이게 ‘먹혔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읽고, 듣기만 열심히 하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을 길러내주면 기업 입장에서 ‘땡큐’죠. 말대꾸 없이 시키는 데

로 하는 사람. 70~80년대 독창성이 필요 없는 산업화시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효용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시절 경험담을 예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설을 앞두고 강 교수를 불러다 놓고 8시간 동안 씬없이 혼자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아! 이렇게 쓰자, 이제 받아써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는 게 강 교수 본인 업무의 70%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이 혼자말하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때 깨달았다. ‘말의 힘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말은 하려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말할 기회가 늘어나면 스스로 학습이 이뤄집니다. 리더는 이것을 전이해주는 사람입니다. 듣고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가진 것(정보 등)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강 교수는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길 권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전북대 초빙교수가 강연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 거쳐보라는 뜻이다. 생각을 곧장 글로 담기는 어렵지만, 생각을 말로 번역한 뒤 그 말을 정리해 글로 표현하면 수월해진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과 일하는 5년이 매일 즐거웠다”며 “그 핵심적 이유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가감 없이 알려줘서”라고 했다. 정보를 알게 되니 배경·맥락·취

지·의도가 파악되고,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주의의식이 생겼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의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표현하는 것을 억눌러왔습니다. ‘침묵이 금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손

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창의나 창조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에는 말하고,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협력과 연대가 강조될 것이니까요.”

한편,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연은 다음달 2일 가나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도박문제관리 광주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센터장 한은경)는 지난 25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2017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했다. (사진)



최근 광주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고 교생들이 가짜 귀금속을 전당포 판매하려다 걸려오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청소년 도박문제 확산을 막고 학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진

행되고 있다. 광주센터는 이날부터 광주·전남지역 10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호주 한인 청년 1000km 자전거 달려 대선 재외 국민투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25일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는 동부 브리즈번에서 1000km를 자전거로 달려온 20대 청년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브리즈번에 사는 이한결(27)씨.

브리즈번에서도 3일 뒤인 28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실시되지만, 그는 호주 한인들에게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라는 점을 알리려 고향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호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현재는 특기인 사진 실력을 활용해 한 법률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권리와 의무는 나중엔 어떤 모



양으로든 돌아오게 돼 있다”며 “게으름과 무관심에 쉽게 타협해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라는 마음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브리즈번에서 출발해 13일만인 22일 시드니에 도착했다. 이씨는 “제가 사는 브리즈번에는 투표소가 개설되는 데도 투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의무라는 것과 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었고,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광주청년센터 the숲, 청년일자리 채용 파티

광주시와 ‘광주청년센터 the숲’은 27일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청년일자리 채용파티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2017년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이 직접 채용정보와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청년채용을 목표로 하는 ㈜엘리파이프와 모노리스 등 20개의 청년사업장과 생각하는 손 등 4개의 학교 밖 청소년 사업장이다.

올해는 오픈인터뷰도 열린다. 사업장을 개방하는 오픈인터뷰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각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실제 근무할 현장을 둘러보고 심층상

담을 받아들 수 있다. 한편 채용파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githeforest.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인사

- ◆TV조선 ▲제작본부장 상무 김태성
- ◆순천시 ▲사무관 전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나안면장 황택연 ▲정원산과장 임종필

조환익 한전사장 연평도 전력공급 점검



조환익 한전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6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전력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전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13주년 기념식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중)은 26일 개원 13주년 기념식을 갖고,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서 첨단의료역량 강화와 새로운 혁신을 다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정광고 ‘대선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정광고(교장 임형철)는 지난 23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NH농협은행 목포신안지부 지역사랑 후원금



NH농협은행 목포신안지부(지부장 장은석)는 최근 (재)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윤창섭)에 지역사랑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박진상·최덕희씨 장남 창훈군 이승암(광립토건·동성종합건설·광림종합중기 회장)·정문숙씨 삼녀 보현양=30일(일) 낮 12시30분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
- ▲김중근(전 일동중학교 교사)·박향순씨 차남 대성군 최서규·박복임씨 막내 경화양=30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상무리초 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062-374-8181.

등문회

▲제1회 영광 군남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상래) 화합한마당=30일(일) 오전 10시 30분 군남초등학교 운동장 문의 신현준 010-4605-7530.

중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중친회 청년회 가족한마당=29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압촌동 구산수목원 문의 부회장 김용기 010-8857-6616.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062-1366.
-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인터넷·도박·니코틴·약물 등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지역주민 및 직장인 예방교육 실시 062-654-3802.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회원은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원은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충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

5588, 010-9440-2512.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 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 자정방문 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

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리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족지원회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옹호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부음

▲이춘원씨(전 농협전무) 별세 장성(수원중앙병원장)·영성(한국일보 부사장)씨 부친상 한계수(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김형주(전 자산관리공사 차장)씨 부부상=발인 27일(목) 서울아산병원 30호실 02-3010-2230.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박병주 님(남/67세) 子/子婦: 박상연/양연아 女/婿: 박윤미/사정철 未亡人: 노종만 *발 인: 4월 28일 *장 지: 화순 천천면 선영 *연락처: 227-4381	401호 故염규백 님(남/92세) 女/婿: 염양숙/박성규, 효숙 未亡人: 양정자 *발 인: 4월 27일 *장 지: 임실호국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황순희 님(여/98세) 子/子婦: 임상국/김경숙, 상진/안남희 女/婿: 임상미/김경국 未亡人: 최연경 *발 인: 4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1호 故최경순 님(여/63세) 子/子婦: 이명호/박금자, 성호/양화순 女/婿: 이수원/최영수 *발 인: 4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102호 故윤경호 님(남/52세) 子: 윤경호, 경민 女: 윤수연 未亡人: 박연미 *발 인: 4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